

2006년 임금상승률 OECD의 2.3배

통계청, 임금 5.53% 상승에 물가 2.2% 올라 ... 동유럽 다음으로 최고

2006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제조업 임금 상승률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6년 현재 162.1로 2005년(153.6)에 비해 5.53%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 임금지수는 2000년 100에서 2001년 106.4, 2002년 119.1, 2003년 129.5, 2004년 142.5, 2005년 153.6, 2006년 162.1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국내 임금 상승률은 조사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39%의 2.31배에 해당된다.

OECD 회원국의 2006년 제조업 임금지수 상승률은 헝가리가 8.49%로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6.86%), 체코(5.98%), 폴란드(5.92%) 등도 상승폭이 컸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영국(5.15%), 뉴질랜드(4.44%), 스페인(4.21%), 오스트레일리아(4.18%), 멕시코(4.06%), 노르웨이(4.03%), 아일랜드(3.89%), 이태리(3.34%), 덴마크(3.17%), 오스트리아(3.16%), 룩셈부르크(3.10%), 스웨덴(3.01%)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2.81%), 벨기에(2.22%), 네덜란드(1.76%), 미국(1.47%), 일본(0.96%), 독일(0.91%), 캐나다(0.44%), 포르투갈(0.29%) 등은 임금 상승률이 3%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이 2.2%로 OECD 평균인 2.54%는 물론 미국(3.3%), 노르웨이(2.3%), 스페인(3.5%), 영국(2.3%), 그리스(3.2%), 룩셈부르크(2.7%), 멕시코(3.6%), 포르투갈(3.1%) 등보다 오히려 낮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7>